

한 잔의 와인에 담긴 경영의 가치

글 _ 잉카인터넷 주영훈 대표

비옥한 페루아(Terroir)의 포도나무 열매는 명품와인으로써의 풍미를 낼 수 없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땅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맞도록 배양한 포도나무가 생존과 종속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탄생한 양질의 포도가 명품와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최대 과제인 '인재 경영'도 그렇습니다. 자칫 소홀하게 관리하면 금방 상해버리고 변질되는 섬세한 포도 품종인 '피노누아' 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수 많은 변수들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인재 경영'은 기업과 경영자의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깊은 맛과 향을 지닌 명품와인으로 태어나듯, 시련을 함께 겪고 이겨낸 사람들간의 믿음은 명품기업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발굴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들의 특성을 살리는 경영으로 끊임없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품와인의 탄생을 위한 또다른 요소는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장인정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화는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명성 높은 와인들과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미국의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파리의 심판'이라고 불리는데,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환경적 요소가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와인 생산자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온갖 시행착오와 역경을 이겨내어 결국 미국 와인이 프랑스 1등급 와인의 명성을 넘어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된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원의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은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숨은 가치를 이끌어내고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통성만 내세우는 결과를 '파리의 심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체된 기업은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고 결국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으로 불리워 가치를 넘어 질적 가치로써 감동을 창출하는 미국, 칠레, 호주 등의 와인 신흥국처럼 기업들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 창출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올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봅니다.

1) 토양을 비롯한 포도를 만들어 내는 자연환경(토질, 일조량, 기후, 위치 등 포함된 용어)

